

왜 살림정치인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삶의 위기감에 짓눌려 있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회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작심한 여성들이 지난 7월 28일 '살림정치여성행동2012'의 시작하는 모임을 열었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여성들이 오는 9월 20일 창립모임을 개최하고 행동에 나선다.

왜 살림정치인가?

살림이란 살려낸다는 것, 경영한다는 것, 그리고 보살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란 국민이 안중에 없는 당리당락을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경영은 국가를 '국민의 가정'으로 간주하고 국민을 가족 돌보듯 보살피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살림정치의 기본정신이다.

여성들이 살림정치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왜 여성인가?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지금까지 투여되지 않았던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힘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데서이다. 세계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꼽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여성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은 지난날의 삶을 통해 살림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담지한 인간군으로 진화되었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바꾸어낼 유전자를 여성들이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더 이상 뒷전에 머물며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때이다. 2008년 10대 소녀들이 켜들었던 촛불의 위력을 이제 여성들이 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말할 권리, 들을 권리, 촛불 켜 권리, 희망버스 탈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권자로서의 투표권이다. 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2014년, 2017년에 이어지지만 우선 다가온 2012년의 양대 선거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우리 주변에는 비켜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치권 개혁을 위한 여성행동을 우선하는 것은 이 과제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살림정치여성행동'의 출범을 알리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참여를 권유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열음을 깨는 바늘 끝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